

코로나 고용충격 정점 찍었나...정부는 “고용회복”

5월 취업자 39만2천명 ↓ 실업자 127만8천명 사상 최대 40대 · 제조업 취업자 감소...코로나 여전 고용회복 일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업자는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고용충격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가 11년 만에 최대로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발 고용충격이 취약계층에 더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실직자 증가에 따라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4월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줄고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됐다며 고용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1.4%) 감소했다. 4월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사상 최대...코로나발 고용 대란 정점

5월 고용지표의 특징은 전체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지만 실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고 40대와 청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는 등 세부적으로 코로나발 고용대란이 정점을 찍은 모습이다.

우선 연령별 취업자 감소폭을 보면 40대의 경우 1년 전보다 18만7000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가계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사정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청년 고용사정도 좋지 않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3000명 감소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 15만명 이상 감소세를 나타냈다. 여성 취업자는 같은

기간 23만9000명 감소해 두 달 연속 20만 명 이상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발 고용충격은 자영업자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명 감소해 1998년 12월 28만1000명 감소 이후 21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직원없이 나홀로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1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 채용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도 65만3000명 감소해 3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감소폭을 기록했다.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늘어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5월 제조업 취업자는 5만7000명 감소해 전월 4만4000명보다 감소폭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하고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조업 고용시장도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자는 127만8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월 기준 사상 최대로 늘었다. 공무원 채용 등이 재개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층이 구직활동을 시작해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직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발 실업대란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4월보다 나은 5월...정부 “고용회복 조짐”

다만 정부는 4월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면서 코로나발 고용충격이 정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자 급증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가를 내놨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늘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4월 4만4000명에서 5월 33만3000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3월 160만7000명, 4월 148만 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던 일시휴직자도 102만명으로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표에서 고용개선세가 나타나자 정부는 일제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점검회의에 앞서 “코로나19의 1차 고용시장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한다”며 “실업률 상승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시대의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여건’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긍정적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고용동향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업자가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도 “수치상으로는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게 눈에 띄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 숙박·음식업, 교육업 등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중히 고용회복 판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

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총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전날보다 50명 증가한 1만1902명을 기록해 3일 만에 50명대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 향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서비스업 일자리도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고용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 높은 고용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6월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정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더 신속히 정부가 도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총 107만가구에 4829억원...각 가정당 45만원씩

10일부터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가구 중 149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7만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5만원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가구에 대해서도 심사를 완료한 뒤 15, 19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3월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184만가구로, 신청금액은 7074억원에 달한다. 상반기분 신청이 111만가구이며 하반기분 신청은 73만가구다.

이날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107만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는 37만가구로 34.6% 비중을 차지했다. 맞벌이가구는 4만가구로 3.7%를 나타냈다.

중상자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2만가구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상용근로자

가구는 45만가구로 42.1% 비중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7월20일보다 한 달 이상 지급일을 앞당겼다.

반기분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신청금액의 35%를 지급하게 되며, 8월 정산 때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되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공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월말까지 찾아가지 장려금은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 폐지

국토부 “공정경쟁 촉진, 발주자 업체 선택권 강화될 것”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규제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

을 수 있게 됐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시공자력 결정 발주자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시아나 몸값 낮추자” 정몽규 승부수 통하나

아시아나 재무상태 극도 악화 HDC현산 “원점 재검토” 요청

관련업계 “인수 포기보다는 인수가격 조정에 더 무게”

HDC현대산업개발이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더욱 악화해 계약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는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의 몸값 낮추기 전략에 들어갔다고 봤다. 이 전략이 불발로 그칠 경우 인수 포기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몽규 HDC현산 회장의 승부수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전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입장문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말 HDC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

HDC현산은 입장문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상황 재검토와 인수조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유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시기와 지금의 재무 상태가 너무 달라서다.

아시아나항공은 불과 5개월 만에 부채가 4조5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올해 1분기 현재 계약 기준은 2019년 반기 말 대비 1만 6126% 급증했다. 또 자본총계 역시 지난해 반기 말 대비 1조 772억원 감소해 자본잠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이번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까지 우려했다.

HDC현산의 적극적인 재협상의 요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HDC현산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포기설이 제기될 때 마다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관련 업계는 HDC현산이 인수 포기보다는 인수 가격 조정에 더 무게를 두고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사를 인수해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하는 것이 정몽규 HDC현산 회장의 염원인데다 입장문에서도 “인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격으로 2조5000억여원을 써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가치보다 무려 2.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항공산업의 전망도 불투명해 시장 가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당시 기자회견을 자처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다”라면서 “최악의 경우 인수 불발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관건은 인수 가격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관련 주요 일지

4월 10일	금오아시아그룹,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에 자구안 제출
11일	채권단, 자구안 거부
15일	금오아시아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25일	매각 주권사 그레이드스위스(CS) 증권 선정
7월 25일	금오산업,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 공고 발표
9월 3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입찰 마감
11월 7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 마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컨소시엄, 제주항공-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뱅크스트릿 컨소시엄 선정
12월 12일	매각 우선 협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컨소시엄 선정
12월 27일	HDC현대산업개발, 금오산업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2020년	
5월 27일	산업은행, HDC현대산업개발에 ‘6월 말까지 인수 여부 답변’ 요구
6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인수 조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
	산업은행, HDC현산의 인수 포기 시 분리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 전달